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 내용분석 연구

김 경 일*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임 은 영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 요 약 》

장애이해교육 자료는 비장애학생의 장애에 관한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을 바로 잡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인식을 바람직한 인식으로 이끄는 등 성공적인 통합으로 이끌기 위해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이해사이트에 탑재된 12편의 장애이해영상물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기본 정보를 분석하고, 둘째, 영상물의 등장인물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영상물 속의 갈등 상황 및 내용전개를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은 주로 실제적인 느낌을 주고, 감정 이입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형태로 제작되어 있었으며 영상물 속의 등장인물은 특정 장애 영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다. 장애로 인한 갈등 상황과 수동적인 대처가 주된 내용이었으나 차츰 능동적으로 해결책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해 잘못되거나 비하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영상물이 상당수 있었다. 이에 앞으로 제작 될 영상물은 다양한 장애유형을 반영하고 유,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연령에 적합한 영상물이 고르게 제작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상물은 제작자나 기획자의 장애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앞으로의 제작에는 전문가의 감수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주제어 : 장애이해,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

* 교신저자(nagnekada@hanmail.ne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들은 궁극적으로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하고,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개정 특수교육진흥법(1994)에 따라 통합교육의 법률적 규정이 마련되었다(김병하, 2005). 이후 해마다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수가 증가되어 2011년 현재 82,665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57,924명(70.1%)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인적, 물리적, 행·재정적 요소가 지원 되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생활하는 비장애학생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에게 무시,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친구로서 학급 구성원으로 수용되어야 한다(Hartwell, 2001).

이에 우리나라는 통합교육 정착을 위해 2003년부터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권장해 왔으며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연차보고서(2011)에 따르면 유치원 72.8%, 초등학교 94.1%, 중학교 91.2%, 고등학교 85.2%가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장애이해사이트(<http://edu.knise.kr>)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장애이해교육을 위해 독서 및 집단 토론, 영상물 시청, 공놀이, 인형극, 모의 장애체험활동, 역할극, 장애인과의 접촉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장애이해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시청각활용 수업으로 초등 56.7%, 중등 38.5%의 교사가 장애이해교육을 위해 영상물을 사용하고 있다(우정환, 김영걸, 이창섭, 2008). Dale은 영상물을 활용한 학습은 학습자에게 반구체·반추상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추상적인 교육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했다(임인오, 2005에서 재인용). 영상물은 영상과 언어, 음향을 통한 경험 세계의 재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통합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접경험을 하게 한다. 또한 구체성과 추상성을 공유하고 있어 학습자에게 자극을 촉진해 주는 효과적인 학습 자료이다. 홍경민과 민천식(2008)은 영상자료 활용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윤경희(2010)는 장애극복 영상자료를 활용한 이해교육이 또래 유아의 수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인적, 물리적, 행·재정적 부족으로 인해 영상물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배포된 영상물은 12편 정도로 많지 않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을 위해 가장 개발이 필요한 자료는 영상물이라고 하였다(우정환, 김영걸, 이창섭, 2008).

영상물은 다른 중재전략보다 비장애아동의 태도 변화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강렬한 시각적 효과로 인해 오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하성수, 2004). 즉, 잘못 제작된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시대가 바뀔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원시 및 고대에는 장애인이 학대되고 무시의 대상, 중세에는 동정의 대상, 근대에는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보았다(임혜련, 2001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에는 장애인을 동정이나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엄한 인격체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에 반영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을 제시하고 활동을 하기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등장인물의 묘사 방법,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행동, 갈등상황과 내용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영상물에 반영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상물의 종류, 제작기관, 제작연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교에 배포된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에 대한 분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현장의 효과적인 통합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통합교육교사에게 제공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제작방향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기본정보를 분석한다.
- 둘째,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등장인물을 분석한다.
- 셋째,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갈등상황 및 내용전개를 분석한다.
- 넷째,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물 선정

본 연구에서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내용분석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이해사이트(<http://edu.knise.kr>)에 탑재된 21편의 영상물 중 단순한 UCC를 제외한 11편과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의 주도하에 삼성화재와 협력하여 제작된 1편을 포함하여 총 12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장애이해교육 관련 영상물 목록은 <표 1>과 같다.

<표 1> 장애이해교육 관련 영상물 목록

순번	제목	순번	제목	순번	제목
1	우리 친구 까치	5	우리 사이 짝이야	9	내 꿈은 온 에어
2	친구야 함께 놀자	6	렛츠댄스	10	내 친구 현아
3	나팔꽃과 해바라기	7	우리도 할 수 있어 친구야	11	굿프렌즈
4	함께 가는 길	8	마이프렌즈	12	그대로도 괜찮아

2. 분석 기준

본 연구의 영상물 내용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기본정보를 분석하였다. 기본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영상물의 종류, 제작연도 및 제작기관을 알아본다.

둘째,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등장인물을 분석하였다. 등장인물은 주인공인 장애학생과 주변인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영상물에 등장하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성별, 학년, 특성과 주변인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갈등상황 및 내용전개를 분석하였다. 장애학생과 주변인물 간의 일어나는 갈등상황을 중심으로 내용의 전개 양상을 분석하였다.

넷째,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에 나타난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장애 인식 분석 기준은 Bogdan과 Biklien(1977)이 제시한 문학, 영화, TV매체에 나타난 10가지 고정관념과 최강희, 박세라, 하종아(2010)의 장애이론과 프레임 구성 방식에 따른 유형분석틀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분석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분석 기준

분석기준	인물, 내용, 어휘, 행동
놀림과 괴롭힘의 대상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괴롭힘과 폭력을 당하는 인물로 표현됨.
회피와 혐오의 대상	장애인이 혐오스럽고 이상한 대상이 되거나 수치스럽고 귀찮아서 피하고 싶은 인물로 표현됨.
연민과 동정의 대상	장애인이 불쌍하고 안타까워 도움을 주어야할 인물로 표현됨.
장애 극복의 대상	장애를 극복한 영웅적 이미지나 장애를 극복해야하는 인물로 표현됨.
친구로서의 대상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친구로 표현됨.
주체적인 삶의 대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표현됨.
수동적인 삶의 대상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인물로 표현됨.

우리나라는 통합교육 정착을 위해 2003년부터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권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2008년부터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상물을 1996~2002, 2003~2007, 2008~2011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본정보 분석

1) 영상물의 종류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종류

제목	영상물 종류	제목	영상물 종류
우리친구 까치	애니메이션	우리도 할 수 있어 친구야	다큐멘터리
친구야 함께 놀자	드라마	마이 프렌즈	드라마
나팔꽃과 해바라기	드라마	내 꿈은 온 에어	애니메이션
함께 가는 길	다큐멘터리	내 친구 현아	애니메이션
우리 사이 짱이야	애니메이션	굿 프렌즈	드라마
렛츠댄스	애니메이션	그대로도 괜찮아	드라마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은 애니메이션 5편, 드라마 5편, 그리고 다큐멘터리 2편이 제작되어, 주로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제작연도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제작연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제작연도

순번	제목	제작연도	순번	제목	제작연도
1	우리 친구 까치	1996	7	우리도 할 수 있어 친구야	2008
2	친구야 함께 놀자	2002	8	마이프렌즈	2008
3	나팔꽃과 해바라기	2003	9	내 꿈은 온 에어	2008
4	함께 가는 길	2004	10	내 친구 현아	2010
5	우리 사이 짱이야	2006	11	굿프렌즈	2010
6	렛츠댄스	2006	12	그대로도 괜찮아	2011

장애이해교육 관련 영상물의 제작연도를 살펴보면 1996년, 2002년, 2003년, 2004년 각 1편 제작되었고, 이후에 2006년 2편, 2008년 3편, 2010년 2편 및 2011년 1편이 제작되었다. 통합교육 정착을 위해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권장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많은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3) 제작기관

장애이해교육 관련 영상물 제작기관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장애이해교육 관련 영상물 제작기관

제목	제작기관	제목	제작기관
우리친구 까치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도 할 수 있어 친구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교육과학기술부 KBS한국방송
친구야 함께 놀자	장애인먼저실천 중앙협의회	마이 프렌즈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삼성화재
나팔꽃과 해바라기	국립특수교육원	내 꿈은 온 에어	부산광역시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함께 가는 길	SBS 방송국	내 친구 현아	대전광역시교육청
우리 사이 짱이야	KBS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굿 프렌즈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삼성화재
렛츠댄스	국립특수교육원	그대로도 괜찮아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삼성화재

영상물은 주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장애인 단체 및 기관으로는 국립특수교육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등 4곳, 교육기관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4곳이 있다. 2010년 이후 제작된 3편의 영상물은 민간 기업이 참여 하였다.

2. 등장인물

1) 장애학생

장애이해교육 영상물에 등장하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은 <표 6>과 같다.

<표 6> 장애이해 교육용 영상물에 나오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제목	성명	성별	학년	장애유형	특성
우리친구 까치	까치	남	초4	정신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 줄 아는 것이 적으며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 • 수업 중 연필을 물거나 친구 물건을 만짐 •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놀림을 받음
친구야 함께 놀자	영훈	남	초3	지체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발을 짚고 다니며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함 • 소극적이며 말을 잘 하지 않음 •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놀림을 받음
나팔꽃과 해마라기	애영	여	초5	자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웃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코나 볼을 비빔 • 자신의 물건에 대해 집착이 강함 •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탄 깃을 함 • 반향어 사용, 언어를 반복해서 사용, 피아노 잘 치
함께 가는 길	지훈	남	고2	중복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 것에 집착 • 관심을 끌기 위해 돌발 행동을 함
	용희	남	고2	중복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이 없고 조용하나 체육활동 시 적극적 참여
	우석	남	고2	중복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런 교실 이동을 따라가지 못함
우리 사이 짱이야	아람	남	초4	뇌성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가락 굵어 있고, 눈이 이상, 휠체어와 목발 사용 • 말수가 적고 소극적,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렛츠댄스	보람	남	중등	다운증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랑하고 활발 •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며 춤을 좋아함 • 좋아하는 사람을 사진으로 찍는 시늉을 함
우리도 할 수 있어 친구야	기현	남	초6	지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기심 많고 수업 중 친구에게 기대거나 춤을 춤
	수정	여	초6	지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를 좋아하고 수화를 할 수 있음
마이 프렌즈	지희	여	중2	지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가 없으며 상황에 맞지 않게 늘 웃음 • 인형에 집착
내 꿈은 온 에어	은희	여	고등	시각장애 (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런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각을 잃어감 • 영화감독을 꿈꾸며 밝고 명랑함 • 도전적으로 생활
내 친구 현아	현아	여	유치원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여운 외모를 갖고 있으며 수화를 사용 • 그림을 잘 그림
굿 프렌즈	하민	남	중등	지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하는 친구를 안거나 관심 끌려고 물거나 찌름
	송이	여	중등	장애유형 제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이 없고 행동이 느리며 감정표현을 잘 않함 • 책 번호, 위치를 정확하게 빠르게 파악하여 정리
그대로도 괜찮아	은하	여	고등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모양 보고 말 이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말을 함 • 힙합을 좋아함.

장애학생의 장애영역을 살펴보면 2010년 이전에는 신체적 장애 2편, 정신적 장애 6편으로 정신적 장애를 소재로 한 영상물이 많았다. 그러나 2010~2011년에는 신체적 장애 3편, 정신적 장애 1편으로 신체적 장애를 소재로 한 영상물이 많이 제작되었으며, 특히 감각장애를 소재로 한 영상물이 많이 제작되었다.

등장인물의 성별을 보면 남학생 9명, 여학생 7명이다. 2008년 ‘나팔꽃과 해바라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애를 가진 남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는 장애를 가진 여학생이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 등장인물의 학년을 보면 유치원 1편, 초등학교 5편, 중학교 3편, 고등학교 3편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이 가장 많았다.

1996~2002년에 제작된 영상물에 등장하는 장애학생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둘째,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 셋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소극적이고 무능력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2003~2007년에 제작된 영상물에 등장하는 장애학생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둘째, 괴롭힘이나 놀림을 받지 않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2008~2011년에 제작된 영상물에 등장하는 장애학생들은 이전의 영상물에 나오는 장애학생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첫째,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친구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둘째, ‘마이프렌즈’를 제외한 다른 영상물들에서 주인공은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점이나 뛰어난 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삶에 있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친구의 놀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2) 주변인물

장애이해교육 영상물에 등장하는 주변인물은 가족, 친구, 선생님, 비장애학생의 부모 등이며 구체적인 인물의 특성은 <표 7>과 같다.

<표 7> 장애이해교육 영상물에 등장하는 주변인물의 특성

제목	인물	성별	인물의 특성
우리친구 까치	엄지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이 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물 • 까치를 붙잡자고 여기고 까치와 놀아줌
	마동탁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 까치와 갈등관계에 있는 인물 • 까치를 싫어하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임
	혜성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를 가진 동생으로 인해 힘들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인물 • 동생 돌보는 것에 지쳐있음
친구야 함께 놀자	경래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재수 없다고 생각, 영훈이와 갈등관계에 있는 인물 • 준호를 놀리고 괴롭힘
	병수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훈에 연민을 느끼고 도움을 주는 인물
	선생님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인물
나팔꽃과 해바라기	차경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를 가진 언니로 인해 힘들어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인물 • 애영이를 귀찮아함
	민우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하고 배려심이 많으며 애영이의 챙겨주는 인물
	엄마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식 개선에 노력하는 인물
	선생님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영이를 비장애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함
	학부모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
함께 가는 길	학생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을 친구로 대함
	특수교사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장애학생 지도 및 지원
우리 사이 짱이야	준호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을 회피하며 아람이와 갈등관계에 있는 인물
	선생님	남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에 대해 연민과 동정을 느끼는 인물
렛츠댄스	지훈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15살의 반항적인 사춘기 소년 • 보람이에게 춤을 가르침
우리도 할 수 있어 친구야	학생들	남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을 도와주고 친구로 대함
	선생님	남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에 대한 연수 및 연구를 꾸준히 함
마이프렌즈	우석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을 좋아하며 매일 지각을 하며 장난치는 것을 좋아함 • 지희를 데려다 주는 것을 귀찮아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인물
	학급친구	남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희를 귀찮아하고 회피하는 등 갈등관계에 있는 인물
내 꿈은 온 에어	동현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희를 좋아하며 옆에서 많이 챙겨는 인물
	엄마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희를 안타까워하고 걱정함
	선생님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희를 격려하고 도움을 줌

제목	인물	성별	인물의 특성
내 친구 현아	준이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아와 갈등관계에 있는 인물 • 그림을 잘 그리고 태권도를 잘 하며 자신감 있음 • 자신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현아를 보고 질투하여 괴롭힘
	친구	남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화를 하는 현아를 신기해하며 함께 어울려 놀이를 함
	선생님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시 현아를 위해 말과 수화를 사용함
굿 프렌즈	예슬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들을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로서 도움을 줌
	방송부원	남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들과 갈등관계에 있는 인물 • 방송제 상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장애학생 돕는 영상 촬영
그대로도 괜찮아	유성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힙합을 좋아하며 은하에게 힙합 동아리에 들어올 것을 권유 • 은하에게 장애 극복을 강조하며 갈등
	엄마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화를 쓰지 못하게 하고 노력하여 일반인처럼 되기를 강요
	부원	남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장애인 은하가 동아리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

1996~2002년에 제작된 영상물에서는 주변인물의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인물이 등장한다. 둘째, 장애학생을 불쌍하게 여겨 도와주는 인물이 나온다. 셋째, 장애학생의 가족들은 장애학생으로 인해 힘들어 한다.

2003~2007년에 제작된 영상물에 등장하는 주변인물은 장애학생을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도움을 준다. ‘우리사이 짱이야’, ‘렛츠댄스’에서는 교사의 부탁으로 친구를 도와준다. ‘나팔꽃과 해바라기’의 동생 차경이와 교사는 주인공을 회피하려고 한다.

2008~2011년에 제작된 영상물에 등장하는 주변인물은 기존의 영상물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장애학생을 학급에서 함께하는 친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친구들과 어울려 생활하는 모습이 보이며 장애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준다. 반면에 ‘마이프렌즈’의 주변인물들은 여전히 장애학생을 회피의 대상으로 본다.

3. 갈등상황과 내용전개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갈등상황과 내용전개 <표 8>와 같다.

<표 8>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갈등상황과 내용 전개

제목	갈등상황과 내용 전개
우리친구 까치	정신지체를 가진 까치는 친구들의 놀림을 받는다. 그것을 보고 엄지는 까치의 친구가 되어 준다. 엄지의 도움으로 장애물달리기를 잘 해내게 되고 반 친구들은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고 까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기로 한다.
친구야 함께 놀자	경래와 친구들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영훈이를 '다리병신' 이라고 놀린다. 그 모습을 보고 병수는 영훈이를 보호하고 감싸주며 담임선생님은 장애체험 활동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친구들은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경래도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말과 행동을 고치게 된다.
나팔꽃과 해바라기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애영이는 학급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친구들의 놀림을 받는다. 그런 언니를 돌보는 차경이는 힘들어하고 언니를 싫어한다. 합창대회 날 민우 대신 애영이가 대신 연주를 하고 그 모습을 본 친구들과 차경이는 반성을 하게 된다.
함께 가는 길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생활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우리 사이 짱이야	준호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아람이와 짝이 된 것을 매우 못마땅해 하지만 아람이를 도와주면서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람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렛츠댄스	춤추기를 좋아하는 지훈은 선생님의 부탁으로 다운중후군인 보람에게 춤을 가르쳐 준다. 춤을 추면서 서로를 알아가며 함께 학교 춤 대회에 참가한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친구야	비장애학생들은 학생들은 장애학생을 똑같은 친구라고 생각하며 선생님들도 통합교육을 위해 연수를 받고 연구한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요양원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한다.
마이 프렌즈	친구들은 모둠 구성 시 지적장애를 지닌 지희랑 모둠 만드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 한다. 이를 걱정한 선생님은 우석에게 지희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하고 그 과정에서 우석은 지희를 이해하고 친구가 된다.
내 꿈은 온 에어	은희는 갑작스런 망막색소 변성증(RP) 발병으로 시력을 잃어간다. 주위 사람들은 불쌍하게 생각하고 은희를 좋아하는 동현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다. 은희는 자신의 상황과 주위의 위로에 오히려 짜증을 낸다. 그러나 블로그에 올라온 격려와 응원의 글을 보고 용기를 얻어 꿈을 이루게 된다.
내 친구 현아	준이는 청각장애를 지닌 현아가 자신보다 그림을 잘 그려 질투가 나 장난치고 싸우며 현아를 달팽이에 비유하며 놀린다. 이를 본 선생님이 현아에게 '헬렌켈러' 이야기를 들려준다. 장난을 걸고 놀아주는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그림일기로 쓴다. 현아의 그림일기를 보고 준이는 반성하고 친구가 된다.
굿 프렌즈	방송부 학생들이 방송제 상을 받기 위해 지적장애를 지닌 하민이와 송이를 괴롭히고 도와주는 거짓 상황을 찍으려다 선생님에게 혼이 나고 굿프렌즈 활동을 하게 된다. 굿프렌즈 활동을 하면서 하민이와 송이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다시 작품을 촬영한다.
그대로도 괜찮아	유성은 청각장애를 가진 은하가 힙합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힙합 동아리에 들어오라고 권유하고 다른 부원은 반대하여 오디션을 보게 된다. 유성은 장애를 극복하려고 오디션에 합격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준다. 은하는 오디션에 합격하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말을 하고 동아리를 나온다. 유성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반성한다.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중심 소재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갈등이다. 그 밖에 장애학생 가족의 갈등, 장애학생 내적 갈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

1996~2002년에 제작된 영상물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장애학생과 이를 싫어하고 놀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들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갈등은 장애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장애학생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인의 도움으로 해결되며 친구들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장애학생과 친구가 된다. ‘내 친구 까치’에서는 업지, ‘친구야 함께 놀자’에서는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내 친구 까치’는 장애학생과 가족 간의 갈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 혜성은 까치를 돌보는데 지쳐있고 귀찮아한다. 이들 역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2003~2006년에 제작된 영상물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장애학생과 이를 귀찮아하고 피하려는 비장애학생 사이의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우연한 계기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장애학생을 이해하게 되어 갈등이 해결된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함께 가는 길’은 특별한 갈등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2008~2011년에 제작된 영상물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갈등이지만,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친구사이의 일반적인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내 친구 현아’의 갈등의 원인은 현아가 준이보다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이고, ‘굿프렌즈’의 갈등의 원인은 방송제에서 상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작품을 촬영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대로도 괜찮아’에서 은하와 유성도 친구이며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 못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마이프렌즈’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장애학생과 이를 귀찮아하는 비장애학생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4.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1) 사용 어휘 분석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에 사용된 어휘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에 사용된 어휘

제목	사용어휘	놀림	회피	연민	극복	친구	주체	수동
우리친구 까치	엘레리 폴레리 바보랑 애인이래요/ 바보야	○						
	싫어요. 까치랑 앉으면/ 가까이 오지마 바보야/ 근처에 가기도 싫어		○					
	걱정이 되었습니다/안 놀아주면 까치가 너무 외롭잖아요			○				
친구야 함께 놀자	다리병신/ 엄마도 다리병신이지?/ 병신주체에 맡은 잘해	○						
	아침부터 재수 없게/ 장애인을 보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 저렇게 안 되려면 엄마 말 잘 들으라고...		○					
	영혼이가 불쌍해요/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나팔꽃과 해바라기	왜 저렇게 이상한 애를 좋아하니?/	○						
	소를 위해 대를 희생시키는 것처럼.../ 언니 때문에 맘 편 한 적이 없어/ 모자란 애 찾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고요?/ 재수 없더라/ 두 아이 다 망치고 싶으세요?		○					
	선생님 죄송한데 조금만 고생해주세요/ 애영이 더 잘 챙 기란 말씀 안 하셨어?			○				
함께 가는 길	일반학급에서 당당하게 수업 받고 있는 장애학생들/ 단순 한 도우미가 아닌 친구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을 보는 거 랑 같다고 생각해요/정상인인 것 같고 편해요. 그냥 친구 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한 무리 안에 있다는 생각으로					○		
우리 사이 짱이야	그 바보한테 뭘 배워?	○						
	화장실에 혼자서도 못 간다는/ 손가락도 굵어 있고 눈까 지 이상하잖아/ 내가 미쳐요/ 나의 꽃 피는 4학년을 돌려 줘/ 왜 내가 이런 녀석을 데리고 가야 되는거야. 귀찮게 시리/ 니 차라리 휠체어 타고 다니면 안되겠니?		○					
	야, 쓸데없이 발 가지러 간다고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 데려다 줘?/ 아람이와 친구가 된 후에 아람이에게 무엇을 해 줄지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서 나에게 와 봐/ TV에서 본 형들 처럼 우리도 가서 도전해 보는거야				○			
렛츠댄스	아악?...오../ 벌써요?(아.. 오늘 연습실 가야 되는데...)/ 보람이랑 같이 나갈 수 없어요/ 보람이랑 같이 춰서 어떻게 이기겠어?		○					
	보람이 춤 잘춘다.(보람)						○	

제목	사용어휘	놀림	회피	연민	극복	친구	주체	수동
우리도 할 수 있어 친구야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죠?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불편한 친구/ 그 친구가 만족하고...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 같아요.			○				
	‘그냥 친구다’ 라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		
마이프렌즈	애들이 다 싫어 해서요/ 에휴, 또 왜 이리는 거야/ 제가 왜요? 좀 떨어져서 걸어	○						
	조금만 더 신경 써 주면 안 되겠니?/ 좀 데리고 다니면 안 되니?/ 조금만 도와주고 신경써주면.			○				
내 꿈은 온 에어	은희는 촬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선배가 힘든지도 모르고/ 불쌍해서 어떻게하니?			○				
	눈이 안보이지만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			
	자기 자신에게 담당하세요. 장애를 가진 것은 잘못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전 취직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	
내 친구 현아	달팽이도 소리를 못 듣고 현아도 못 듣잖아요	○						
	서로 배려하며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널 놀리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란다.					○		
굿 프렌즈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남들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란다./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답니다.				○			
그대로도 괜찮아	짱이다/ 힙합 좋아한다니까 진짜 반갑다.						○	
	노력이 부족해/ 의지력 강한 친구/ 장애는 극복하는 거야.				○			

1996~2002년에 제작된 영상물에 등장하는 주변인물들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사용하는 어휘를 살펴보면 첫째, 장애학생을 놀리거나 무시하는 어휘가 많이 나온다. 장애학생에게 “바보/ 이상한 애야/ 다리병신” 등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둘째, 장애학생을 회피하거나 혐오하는 어휘가 많이 나온다. “근처에 가기도 싫어/ 장애인을 보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등 어휘를 사용한다. 셋째, 장애학생을 동정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어휘가 많이 나온다. “영혼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영혼이가 불쌍해요.” 등의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2003~2007년에 제작된 영상물에 등장하는 주변인물들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사용하는 어휘를 살펴보면 첫째, 장애학생을 귀찮아하고 피하려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귀찮게 시리/ 애들이.. 다 싫어해서요” 등 장애학생을 귀찮아하고 있다. 둘째,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힘들어 하는데 도와주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람이에게 무엇을 해 줄지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불편한 친구” 등 장애학생을 도움이 필요한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2008~2011년에 제작된 영상물에 등장하는 주변인물들은 장애학생에 대해 특별한 어휘를 사용하기보다 친구에게 쓰는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짱이다/ 힙합 좋아한다니까 진짜 반갑다/ 무브원의 자랑이 될거야/ 의지력 강한 친구” 등 긍정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장애는 극복하는거야/ 정신력이 너무 약해” 등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대로도 괜찮아’의 유성은 은하를 “작은 별”에 비유하였는데 이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행동 분석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을 분석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등장인물 행동분석

제목	행동	놀 림	회 피	연 민	극 복	친 구	주 체	수 동
우리친구 까치	까치	수업 중 연필을 물거나 친구 물건을 만짐/ 친구의 축구공을 빼어 돌려주지 않으려함/ 엄지의 도움으로 장애물 달리기를 성공함						○
	마동탁	까치가 체육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무시	○					
	혜성	까치와 짝이 되는 것을 싫어함/ 까치와 축구하기 싫어하고 거부함		○				
	엄지	까치 돌보는 것을 지겨워함		○				
	학급 친구	까치가 불쌍하다고 하며 친구가 되어줌/ 장애물 달리기에서 격려하고 도와줌			○			
친구야 함께 놀자	영훈	까치를 바보라고 소개함/ 까치와 엄지가 노는 것을 보고 놀림, 가까이 가기 싫어함	○	○				
	영훈	친구가 괴롭히면 울고 소리만 지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함/ 컴퓨터를 잘함					○	
	경래	도움 필요한 장애학생을 무시하고 지나감/ 다리 병신이라고 놀림/ 목발을 숨김/ 농구공으로 영훈이를 넘어뜨림/ 목발을 빼앗아 칼싸움 함	○	○				
	병수	목발을 찾아줌/ 영훈이를 일으켜줌/ 경래가 놀리는 것을 막아줌			○			
선생님	장애 체험 수업을 함			○				

제목	행동	놀 림	회 피	연 민	극 복	친 구	주 체	수 동
나팔꽃과 해바라기	애영						○	
	친구들	○	○					
	차경		○					
	선생님		○					
	민우			○				
함께 가는 길	지훈					○	○	
	용희						○	
	제훈			○		○		
우리 사이 짱이야	아람		○					○
	준호		○	○	○			
	선생님			○				
렛츠댄스	보람						○	
	지훈		○	○				
	선생님			○		○		
우리도 할 수 있어 친구야	기현						○	
	수정						○	
	학급 친구			○			○	
	선생님					○		
마이 프렌즈	지희							○
	학급 친구		○					
	선생			○				

제목	행동	놀 림	회 피	연 민	극 복	친 구	주 체	수 동
내 꿈은 온 에어	은희	시력을 잃어 가면서 엄마에게 짜증을 자주 냄/ 방송부 활동을 열심히 함/ 노력하여 꿈을 이룸					○	
	동현	은희를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줌		○		○		
	엄마	은희를 걱정하고 챙김		○				
	선생님	시각 장애를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함			○	○		
	블러그 방문객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함/ 굳은 의지로 노력 하여 극복하기를 바람.				○	○	
내 친구 현아	현아	준이의 놀림에 준이와 싸움/ 친구들과 어울려 놀 림				○	○	
	준이	현아를 짐투/ 달팽이에 비유하여 놀림	○					
	선생님	수화 사용/ 헬렌켈러의 장애극복 이야기 들려줌				○		
	친구들	현아와 어울려 놀이를 함				○		
굿 프렌즈	하민	친구의 팔을 깨무나 친구들이 이해함/ 친구가 불량배에게 맞는 것을 보고 맞서 싸움				○	○	
	송이	행동이 느리고 밥을 천천히 먹음/ 도서관의 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함				○	○	
	예슬	하민과 송이를 친구로 여기고 도움을 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지켜봄			○	○	○	
	방송 부원	방송제 상을 타기 위해 거짓으로 괴롭히고 도와 주는 영상을 촬영하려고 함	○		○			
그대로도 괜찮아	은하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수업을 들음/ 물병의 진동을 보고 춤을 춤/ 장애를 극복하고 일반인 처럼 되라는 엄마에게 반항함				○	○	
	엄마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강조/ 수화를 쓰지 말고 말을 하라고 함/ 장애를 극복하라고 함				○		
	유성	은하에게 춤을 가르쳐주며 친구로 지냄/ 오디션 합격을 위해 장애를 극복하라고 격려함				○	○	
	부원	은하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춤을 출 수 없다고 여기며 가입을 반대함		○				

1996~2002년에 제작된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장애학생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갈등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여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 해결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주변인물은 장애학생 싫어하고 피하려하거나 놀리고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친구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가족 역시 힘들어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장애학생을 동정하고 불쌍하게 여겨 도움을 주려고 한다.

2003~2007년에 제작된 영상물에서는 장애학생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학생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여전히 장애학생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움을 주려고 한다. 또한 장애학생도 먼저 교우관계를 맺으려 하거나 문제 상황 및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타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함께 가는 길’과 ‘우리도 할 수 있어 친구야’에서 장애학생이 친구들과 어울려 생활하고 모습을 보인다.

2008~2011년에 제작된 영상물에 나오는 주변인물들은 장애학생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친구로 지낸다. ‘내 친구 현아’에서 반 친구들은 현아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놀이를 하며 준이가 현아와 다투기는 하지만 장애 때문이 아니라 질투 때문에 싸움을 한다. 이는 친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또한 ‘굿프렌즈’, ‘그대로도 괜찮아’에서도 장애학생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반의 친구로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으며 장애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I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에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내용분석을 하여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영상물의 선정과 활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제작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이해사이트에 있는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 12편을 대상으로 기본정보, 등장인물, 갈등상황 및 내용전개,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논의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논의

1)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기본정보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기본정보(영상물의 종류, 제작연도, 제작기관)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은 주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의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애니메이션과 드라마가 가지는 교육적 효과 때문으로 생각된다. 애니메이션

이나 드라마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적절한 영상매체이다. 또한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속의 상황이나 대사는 일상생활의 상황이나 대화와 유사하여 실제적인 느낌을 주며, 학생으로 하여금 감정이입이 잘 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홍경민과 민천식(2008), 윤경희(2010)는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형태의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이 비장애학생들의 장애학생의 대한 인식변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윤성덕(2010)은 다큐멘터리는 다른 종류의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보다 비장애초등학생들의 장애수용태도를 긍정적으로 상승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이현주(2010)는 다큐멘터리가 비장애중학생의 장애수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을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제작연도를 보면 2003년 이후에 많이 제작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03년부터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권장하면서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이 필요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 연 2회 이상의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기에는 기존의 영상물의 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을 위해 가장 개발이 필요한 자료는 영상물이라고 하였다(우정환, 김영걸, 이창섭, 2008). 앞으로는 장애영역,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년(초, 중, 고),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영상물의 제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은 주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교육기관에서 제작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제작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통합교육 정착을 위해 2003년부터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권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초기에는 주로 장애인 단체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2008년부터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이 제작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하지만 영상물은 제작자나 기획자의 의도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영상물을 보는 비장애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상물이 그러므로 영상물 제작시 특수교육의 전문가, 장애인, 장애학생의 부모 등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비장애학생에 대한 장애이해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영역,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년(초, 중, 고),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을 제작·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상물은 제작자의 장애인식이 반영되므로 앞으로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 제작에 전문가, 장애인, 장애학생의 부모의 참여와 감수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2)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등장인물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의 등장인물은 크게 장애학생과 주변인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에 등장하는 장애학생의 유형이 발달장애와 신체기능 장애에 편중되어 있었다. 보건복지부(2009)는 장애인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류해 보면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에 나오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은 정신적 장애 7편, 신체적 장애 5편이 제작되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6편, 자폐성장애 1편으로 주로 발달장애에 편중되어 있고, 신체적 장애 중에서는 지체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는 비장애학생들이 장애를 특정 영역에 한정지어 생각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인공은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은 모두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영상물 제작에서는 다양한 장애영역 및 유형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사실적인 묘사를 통하여 비장애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에 등장하는 장애학생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먼저 다가서지 않으며 친구들이 다가올 때 겨우 수동적으로 교우관계를 맺고 있다. 반면에 2008년부터 제작된 영상에서는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나타나며 ‘내 꿈은 온에어’와 ‘그대로도 괜찮아’에서는 주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장애학생이 도움만 받는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며(권택환, 2005), 주체적인 삶을 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은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그들 수준에서의 주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물에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에 등장하는 주변인물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전의 영상물에 등장하는 주변인물은 장애학생을 놀림과 괴롭힘, 혐오와 회피,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2008년 이후의 영상에서는 친구로서 장애학생과 어울려 생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친구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며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하도록 지켜봐준다. 이는 장애이해교육에 있어 비장애학생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장애학생에게 주체적인 태도를 길러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영상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게는 실제감이 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등장인물로

하는 영상자료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즉, 등장인물은 생활연령에 적합한 인물로 묘사해야 한다(권택환 외, 2005).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제작될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은 다양한 장애유형을 반영하고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생을 위한 영상물이 고르게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학생이 주체적이며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과 주변인물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모습을 담아야 할 것이다.

3) 갈등상황과 내용전개

갈등의 구조에 있어서 갈등의 시작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었으며, 그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주요 시작은 장애인에 대한 회피와 혐오, 동정과 연민의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도 장애인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보다는 비장애인의 사랑과 배려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장애학생은 수동적이고 무능력한 존재이며 불쌍한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2010~2011년에 제작된 영상물에서는 갈등상황에 장애학생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내 친구의 현아’는 친구의 놀림에 싸우며 ‘그대로도 괜찮아’의 은하는 부모와의 갈등, 동아리 부원과의 갈등에서도 다른 사람에 끌려가기 보다는 스스로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유훈, 김희규, 유장순, 체세민(2003)은 바람직한 장애 수용 태도를 장애인이라도 존엄성과 인격을 갖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잠재능력을 인정하는 태도, 사회적 성숙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는 태도로 보았다.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에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수용태도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 제작될 영상에서는 학교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친구로서 함께 생활하며 갈등상황에서도 장애학생이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는 모습을 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 때문에 갈등상황이 발생한다면 비장애학생에게 장애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오개념을 심어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제작될 영상물은 장애 때문이 아닌 친구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상황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4)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장애이해교육용 영상물에 반영된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용 어휘와 인물들의 행동을 분석하였으며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물 속에서 어휘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전히 장애관련 단어 등을 잘못 사용하거나 비하하는 내용들이 상당수 차지하였고, 장애인을 회피하거나 혐오하는

어휘도 있었다. 초기의 작품에서는 가장 가까운 주변인들조차 그런 어휘를 사용하였으며 연민과 동정의 마음이 담긴 어휘를 많이 사용하였다. 2008~2011년에 제작된 영상물을 보면 특별히 장애학생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기 보다는 이름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쓰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대로도 괜찮아’에서 유성은 “오리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구나, 작은 별도 아름답구나!”라고 하여 은하를 “작은 별”에 비유하였다. 이는 은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장애이해교육 시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장애란 특별하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의 특징일 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영상물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상물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대부분 장애학생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사랑을 받는 인물로 묘사되다가 서서히 함께 공부하는 친구로 바뀌고 있었다. 초기의 작품에서는 비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을 놀림이나 괴롭힘, 혐오나 회피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갈등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후속 작품에서는 같은 학교, 학급에서 공부하는 친구로 묘사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친구이기에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친구이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었다.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학생도 하나의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하나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장인협, 1987). 또한, 장애학생은 비장애인과 완전히 동등한 모습으로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이소현, 1999). 그러므로 앞으로 제작될 영상물은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장애학생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친구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상물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담겨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김다영(2008)은 영상자료활용장애이해교육이 일반아동의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장애수용태도의 하위 영역인 인지·정서적 태도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등장인물의 사용어휘와 행동을 설정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장애이해교육용 영상이라고 하여 장애학생을 특별하게 지칭하거나 대우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친구 간에 오갈 수 있는 평범한 어휘나 행동을 제시하여 비장애 학생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라는 인식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학생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과 비장애학생을 도와주는 모습을 제시하여 장애학생은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도와가며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제 언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관련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이해사이트에 탑재된 12편의 장애이해영상 자료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장애이해를 위한 영상물뿐만 아니라 책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 기초하여 현재 제작된 장애이해영상자료 중에서 초·중등 학교 급별로 어떤 영상자료가 학생들의 장애이해에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아보는 연구 또한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 특수교육통계**.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 권택환, 김은숙, 김수연 (2005). **제7차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장애관련 내용** 보완자료. 경기: 국립특수교육원.
- 김병하 (2005).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그 역사적 함의와 쟁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1), 449-472.
- 박춘숙 (2006). 장애관련 영화 및 비디오 시청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수용태도.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화문 (2000).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연구 현황과 과제.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35, 83-99
- 우정환, 김영걸, 이창섭 (2008). 초중등학교 일반교육교사의 장애이해교육 실태, 인식 및 요구에 대한 비교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2), 359-386.
- 윤경희 (2010). 장애극복 영상자료를 활용한 이해교육이 또래 유아의 장애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5(1), 25-40.
- 윤상덕 (2010). 장애이해영상물의 종류가 비장애초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이소현 (1999).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의 사회적 통합촉진을 위한 놀이 활동 중심의 통합유치원 교과과정개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4(1), 61-86.
- 이유훈, 권택환, 김희규, 유장순, 최세민 (2003). **유·초등학생 장애이해교육**.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이현주 (2010). 장애 극복 사례를 다룬 영상자료가 중학교 일반학생의 장애수용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인오 (2005). 장애인 등장 영상자료 활용이 장애 수용 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임혜련 (2001). 우리 문학작품(소설)을 통해 본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석사학위 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인협 (1987). **사회복지학 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차수연 (2002). 장애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비장애아동의 태도변화를 위한 중재전략간 효과성 비교. 석사학위 논문.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강희, 박세라, 하종하 (2010). UCC 동영상에 나타난 장애인 인식분석. **재활복지**, 14(1), 1-29.
- 최재완 (2006). 장애아동 이해 영상자료가 초등학생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하성수 (2004).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변화에 미친 변인별 효과 비교.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홍경민 (2007). 영상자료 활용이 일반아동의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경민, 민천식 (2008). 영상자료 활용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통합교육연구**, 3(1), 87-106.
- Bogdan, R., & Biklen, D. (1977). Handicapism Social Policy, 7, 14-19.
- Harwell, R. D. (2001). Understanding disabilities. *Educational Leadership*, 58(7), 72-75.

Research For integrated education understanding
of Understanding of disability training video
Content Analysis

Kim, Gyeong Il

Daegu University

Lim, Eun Young

Daegu University

<Abstract>

As a means to bring forth a successful social integration, educational materials for understanding disability are regard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orrecting non-disabled students' negative or undesirable perception about disabilities and changing negative or incorrect perception of disabilities to a more desirable perception.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on the 12 'Understanding Disabilities' videos uploaded on the Understanding Disabilities web site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educational videos for understanding disabilities that were produced for integrated education as well as the characters, conflicts and storyline of the videos and the perception of disabled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the content of the videos was analyzed to provide teachers with information on the videos and to propose a direction for the future production of educational videos for understanding disabilities.

Key Words : Understanding disabilities, educational videos for understanding disabilities

논문 접수: 2012. 05. 05 심사 시작: 2012. 05. 16 게재 확정: 2012. 06. 17